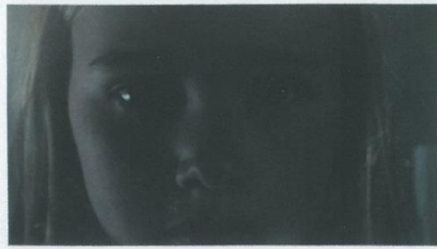


MUINE — Now, Art

직업으로서의 아티스트

국제갤러리에서 열린 <유명한 무명> 그룹전은기가 막힌 네이밍 덕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 해석이 분분했다. 유명에 집착하며 이를 향해 질주하는 세대에 대한 반추? 알려지기가 무섭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 세대? 해석은 자유라지만, 미안하지만 정반대다. 김성원 큐레이터가 선정한 7인의 작가는 무명이 아니라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알려진' 작가들이고, 언젠가는 울지 모를 무명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직업으로서의 아티스트, 그 삶을 기꺼이 안고 나아가는 6인의 작가를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 EDITOR 김만나 PHOTOGRAPHER 박남규 —



오민은 직업하는 일을 전업으로 삼기까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왔다. 서울대학교 기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동대학원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고, 미국 예일대로 가서 그래픽 디자인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작업에 대한 열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시가 계기였다. "학부 때는 주로 18~19세기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 역사학자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 미국에 갔을 때부터 영상 작업을 시작했어. 라익스 아카데미 이후, 암스테르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씩 만들어갔고, 지금은 작업 위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어. 지금껏 음악을 소재로 작업해온 영상 작업은 올해 안에 끝내고, 내레이션이 들어간 단편 영화 형식을 준비할 거예요. 야외 촬영도 많고 해서 올해 진사가 끝나자마자 제작비를 마련하고 작업할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인 작업 중 작가가 있는 뒤로 비치는 영상 <Daughter>는 "통제를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열망에 관한 일종의 통화"라 말한다. 어린 시절 작가 본인의 경험을 픽션 형태로 제작했다. 한국에서 피아노로 서울대학교에 간다는 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옆을 기웃거릴 틈 하나 없이 고도로 집중해야 가능한 일이다. "지적 능력도 덜 되고 정보도 없는 상태지만 똘똘하게 계속 찾으려 했던 거 같아요. 영상 속에서도 소녀의 주위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유 또한 알 수 없지만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요. 원시 시대에 어떤 영적인 존재에 기댄 사머니즘과 같다고 할까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우재를 지내고, 사연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빌붙아요. 그런 철학? 해결된 줄 알았지만 실은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지요." <ABA> 시리즈는 음악 형식과 특정 악곡을 다른 시간 매체에 차용한다. '음악'이라는 추상의 언어를 '장면'이라는 구체적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 실형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1악장을 재료로 삼았고 악곡을 분석적인 장면으로 전환하기 이전, 연주자가 연주에 앞서 음악을 분석하듯 그 구조를 분석한 내용을 선보인다. "보통 연주자의 공연을 볼 때 즉흥적이야 여기고 그게 짜릿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즉흥 무용을 하는 분들과도 작업을 해보았는데 그들 또한 일단 머릿속에서 통달한 후에야 자유로운 몸짓이 나온다고 말하거든요. 연주하는 건 결국 그들 나름의 해석을 표현하는 행위일 뿐이죠. 다음 작업은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의 악보를 분석했을 때 느꼈던 형식의 아름다움을 가시화하는 작업이에요. 음악의 형식을 장면으로 만드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어 추상적이야 생각되지만, 'ABA' 형식의 소나타 구조를 들여다보면 삶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요. 집을 나가 온갖 여정을 겪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장면으로 푸는 작업이 될 거예요." 오민의 다음 행보는 문래예술공장에서의 <무빙/이미지> 전. 오는 10월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로 이어진다.

오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1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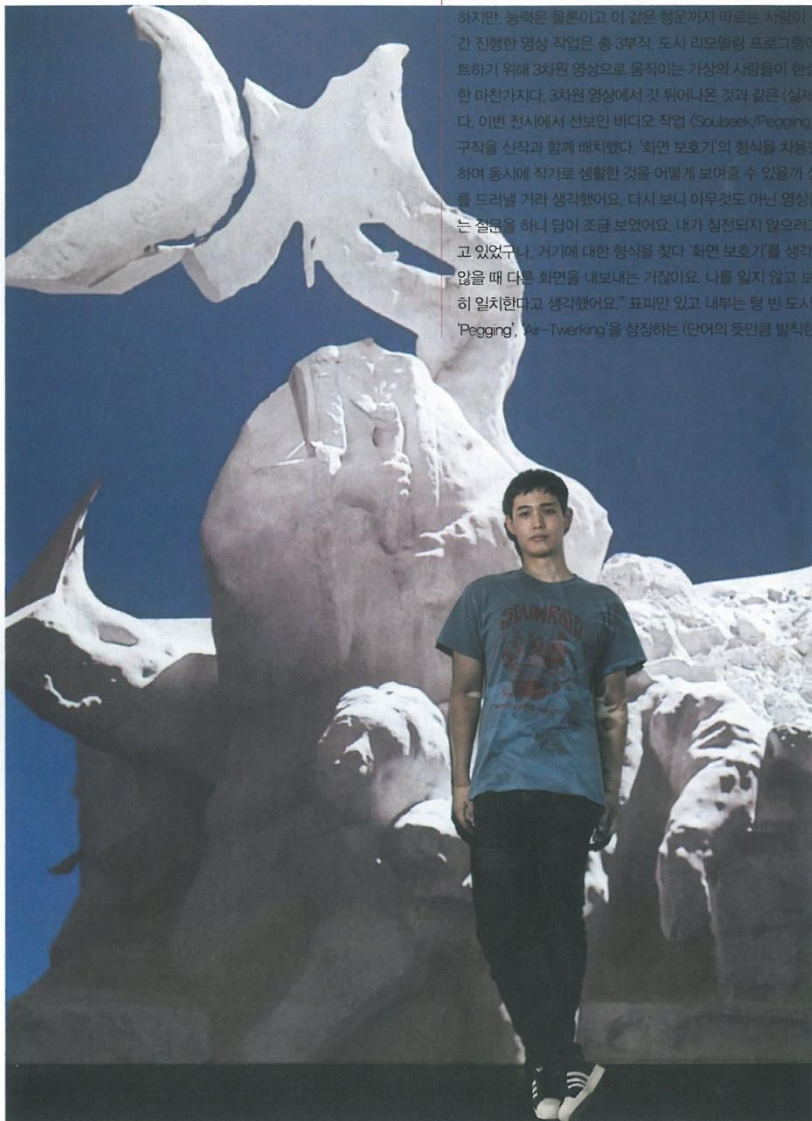
김영나를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질서

누군가 최근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가장 잘하는 3인의 디자이너를 꼽으라고 한다면, 김영나를 한 명으로 꼽겠다. 일반적인 디자이너 역할을 넘어 큐레이팅과 미술 작업까지 경계 없이 활동 중인데, 정착 그녀는 의도한 바 없이 일이 '연결' 되었을 뿐이라 말한다.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딛기 시작한 건, 2013년에 수상한 두산연강예술상 이후다. "이 필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수상 이후 두산 갤러리에서 열린 <선택 표본(Choice Specimen)>은 미술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일반적으로 전시를 홍보할 때 사용하는 간판, 엽서, 현수막 등의 '작품 아닌 것'들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었다. 전철을 타고, 걸어서 갤러리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견했을 홍보 설치물들을 동일한 크기와 소재로 제작해 전시장 내부에 재현했다. "보통 간판 만드는 분이 간판을 만들면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은 퀄리티도 드러나거든요. 미술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선 그런 것들이 화이트 큐브 안에 걸려 있으니, 이거 물성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도 하셨어요. 그런 반응들이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전시장을 일종의 부속품으로 꼭 채운, 텅 빈 것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이 사진 찍어 올린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작업 배경으로,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사진을 찍더라고요. 패션 매거진에서는 알록달록한 그래픽을 배경 삼아 화보도 찍으려 오고,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그걸 보는 게 재미있어요." 이번 전시에는 2015년 뉴욕 개인전 <SET>의 연작인 <SET v.4>를 선보인다. 과거에 커미션 베이스로 진행한 디자인과 개인 작품을 모아 제작 연도나 매체에 관계없이 각각에서 발견되는 시각적 요소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줄무늬, 땀방울, 마름모, 무지개 모양처럼 익히 주변에서 봐온 패턴을 조형적으로, 최소한의 마감을 구현하며 밀어붙이는 욕심이 놀랍다. 시각 디자인과 예술 사이의 구분을 교란하고 도발하는 김영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더북소사이어티의 구정연 씨와 함께 기획하는 코즈에서의 새로운 작업을 공개합니다. 코즈는 H&M과 같은 규모가 아니라서 런던 본사에서 직접 컨트론했어요. 저와 연결이 되어 책 만드는 협업을 했었고 이후에도 좋은 기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플래그십 오픈 때 전시를 기획했는데, 올해는 라딩룸과 북스토어를 만들고 싶어 해 더북소사이어티가 책을 셀렉트하고, 작가 3명을 섭외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쇼케이스 성격의 전시를 진행해요. 에르메스 소원도 작업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플래그십 매장을 찍은홍 작가, 롯데 쪽을 길종상가가 진행하고 그 외 좀 더 프렉티컬한 스타를 저와 이은우 작가가 돌아가면서 해요. 북 디자이너나 그래픽, 전시 등 특정 분야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 관계를 통해 일이 연결,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MUINE ____ Now, Art

김희천의 크고 작은 행과 불행

김희천의 지난 1년을 상상해보니 파란만장한 영화 주인공이 따로 없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후 미술계 사람들에게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예술 재단에 취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전시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건축에 관한)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영상 작업의 전시 제안을 받았다. 2015년 일민미술관의 <뉴 스킨: 본뜨고 연결하기> 전이다. 그곳에서 보낸 여름 이후, 9월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2015 아시아 필름 앤 비디오퍼트 포럼>에서 작품이 상영됐고, 커먼센터 전시로 이어졌다. 이는 또 국제갤러리 <유명한 무명>전으로, 전시 후엔 백지숙 총감독이 기획하는 국제미디어비엔날레, 미디어시티에 참가한다. "유의 깊게 보는 큐레이터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너는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마침 이런 전시가 있는데 네가 할 역할이 있을 것 같다. 는 일들이 이어졌어요. 직장은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는 안 된다. 이도 저도 아니고 망하겠구나. 미디어시티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새벽까지도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 생각했어요. 잘 그만두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부담도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즐거운 마음이 큼니다." 크고 작은 행운이 이어졌다고 말하지만, 동력은 물론이고 이 같은 행운까지 따르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다면 누가 할까 싶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영상 작업은 총 3부작. 도시 리모델링 프로그램에서 힌트를 얻었다. 건축의 유효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3차원 영상으로 움직이는 가상의 사람들이 현실의 서울 사람과 비슷해 보였다. 건축물 또한 마찬가지다. 3차원 영상에서 갖춰지거나 갖춰지지 않은 것(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빌딩들이 가짜처럼 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비디오 작업 <Souiseek/Pegging/Air-Twerking>은 일민미술관에서 전시한 구작을 신작과 함께 배치했다. '화면 보호기'의 형식을 차용한 기발한 영상이다. "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며 동시에 작가로 생활한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지난 1년간 모아온 영상들이 뭔가를 드러낼 거라 생각했어요. 다시 보니 아무것도 아닌 영상들이었어요. 1년간 내가 뭘, 왜 한 거지? 라는 질문을 하니 답이 조금 보였어요. 내가 칭찬되지 않으려고, 동아줄이라도 잡듯 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대한 형식을 찾아 '화면 보호기'를 생각했어요. 화면 보호기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크 화면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나를 잊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 화면 보호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했어요." 표피만 있고 내부는 텅 빈 도시라 도시를 둘러싼 것들 사이로 'Souiseek', 'Pegging', 'Air-Twerking'을 상징하는 (단어의 뜻만큼 발칙한) 화면 보호기들이 깜빡인다.





제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지만 본전시에는 초청받은 한국 작가 중 남화연의 작품만 찾지 못했다. “베니스에 간 여러명이 그렇게 알했어요, 작품이 어떤 장소에 놓이느냐는 큐레이터의 영역이라 제가 어쩔 수 없죠” 광주비엔날레 이후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전격 발탁된 오쿠이 엔위자와의 인연이 2008년 이후부터 이어진 셈이다. 코넬 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문사를 졸업한 후, 2014년에는 독일 베를린의 HZT에서 석사 과정을 지냈다. 수년간 페스티벌 붐을 통해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녀였기에, 무대에 대한 갈증으로 느껴졌다. “지난 6월에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어요, 댄스와 퍼포먼스를 커리큘럼으로 하는 작은 학교였고요, 활동을 하다 오는 작가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소규모라 제 동기가 5명이었어요. 더 나이 들면 못 배울 것이다 싶어서 갔죠. 역시 아니었어요, 댄서들과 작업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얻고(웃음) 대신 몸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은 좀 더 발달시킨 것 같아요.” 남화연은 퍼포먼스가 등장하는 비디오 작업과 실험적인 스테이지 퍼포먼스를 주로 선보인다. 특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의 실체에 대해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것과 직면한다. 전설적인 한국의 근대 안무기였던 최승희 같은 인물이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적자심장>과 같은 유물을 다루기도 했다. 이들의 실체에 접근하고 경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이해하고 인다는 것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질문들이다. 국제갤러리 전시에서는 식물 이 자연적으로 기형화되는 ‘대화현상’에 착안해 흑백의 거대한 백합조각 <White Madonna>와 <Black Madonna>를 만들었다. 조각은 처음 작업했다. “김성원 선생의 권유도 있었고, 저도 못질이 그리웠던 부분도 있었어요, 작년 5월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기형의 데이지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대화 현상을 구글링하면 ‘후쿠시마 데이지’보다 더 해괴망측한 꽃들의 이미지가 넘쳐나요. 모두 자연이 만들어낸 신기한 형태죠. 섬뜩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상하게 매료되었어요. 자연이 만들어내는 조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대와 예상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이 조각들을 완벽하게 형태화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길면 10년, 20년? 이런 꽃들을 꾸준히 만드는 걸 하고 싶어요. 그들을 나중에 모아 정말 요상한 정원을 만드는 거죠, 작가가 노년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을 도전? 김성원 선생님이 도록에 ‘도전’이라 쓰셨더라고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처음으로 조각에 도전하는 작가 남화연을 만나게 된다.”) 그 도전하고 싶은 시간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예요.” 프랑스의 프락 로렌(FRAC Lorraine)은 남화연의 퍼포먼스 작업 중 ‘Dimensions Variable’을 컬렉션을 선택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나누었는데, 언젠가 볼 수 있기를.

MUINE ____ Now, Art



이윤이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전공했다. 남성 주류에서 다루어왔던 관념적 언어보다 몸이 깨치는 언어, 고정되지 않은 언어에 관심이 많았고 표현 방법을 찾다 시와 음악, 스토리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영상 매체에 매료되었다. 뉴욕시립대 헌터칼리지에서 미술학부 학사와 통합매체 석사를 수료하고 돌아온 그녀는 '시는 계속 가져가는 욕망'으로 삼고 영상과 설치 작업을 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두 개의 영상 중 호응이 컸던 작품은 <한편... 자식!>이라는 16mm 흑백 유성 영화다. 미국의 슬랩스틱 코미디언인 버스터 키튼의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쓴 작가는 카메라의 위치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해 다닌다. 단출한 피아노 배경음악과 빠른 카메라 속도, 화면 속 돌의 궤적 효과가 어우러져 페이스스가 질게 느껴진다. "뉴욕 시절에 지냈던 집의 옥상이 배경이에요. 라스트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를 보면 금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처럼 학교 클래스 친구들이 화두를 던져줘요. 제가 하는 작업에서 빠져 있는 것을 정해주는 데 저에게는 유머, 코미디를 넣으려 했죠. 슬랩스틱 코미디를 생각하게 됐어요. 당시엔 학생이라 가진 재료가 많지 않아 제가 카메라 앞에 섰고요.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구르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쓰러짐의 연속이라는 것은 슬랩스틱이 주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정교한 에센스라 생각했어요. 사라져가는 광학기인인 16mm 영사기를 사용하는 일, 초창기 흑백 슬랩스틱 영화를 재현하는 일, 그 쓸모없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어요. 미술 작업, 시 쓰는 일, 이 모든 쓸모없음, 쓸모없는 행위들이요. 이번 전시 주제와도 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생 시간> 작업에서 작가는 악기를 연주하고 운반하는 과정을 담은 퍼포먼스 기록 영상을 벽에 설치했고, 악기의 이동 경로를 유추할 수 있는 서신들, 임시 공간에 설치한 하모니움. (작가가 앉아 있는) 이동식 제작 벤치를 하나의 연결되는 시간으로 배치했다. 영상을 들여다보면, 처치 관련한 하모니움이 등장한다. 뉴욕의 스튜디오에서부터 시작한 여정은 여주의 컨테이너, 여러 전시장과 레지던시 등을 이동하며 퍼포먼스의 오브제가 되기도, 프리마켓에서의 빈티지 상품이 되기도 한다. "덜컹덜컹, 끌고 오갔으니 손상될 것이고 그 덜컹덜컹함을 사운드 트랙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모니움은 또 여기, 국제갤러리 전시장에 잠깐 안착했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서신에서 3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작업을 연장해 다시 픽션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이의 다음 행보는 8월, 논현동 플랫폼 엘에서 진행될 그룹전이다.

이윤이의 영상과 이야기들



아트와 디자인 사이에서 식물의 자세, 베리핑즈

베리핑즈를 만나면 '베리 핑큐'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최근 1~2년 사이에 음식과 식물에 대한 비주얼라이징과 표현 방식이 부쩍 향상됐다. 심지어는, 도산공원 권마마 마켓, 수르기, 모제인송 등 핫한 트렌드로 무섭게 떠오른 식물과 사람의 조화로움 뒤에는 어김없이 베리핑즈가 있었다. 베리핑즈는 '어번 유티피안 리빙'을 모토로 활동하는, 윤숙경 대표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 그룹이다. 전시장에서 짧은 만남이 아쉬워 옥수수에 위치한 베리핑즈 작업실에서 윤숙경 대표를 다시 만났다. 국제갤러리 전시에서 주제로 삼은 긴 '베리키퍼디아(Verkipedia)', 베리핑즈를 시작한 2013년, 스튜디오 작업과 별개로 전적으로 그들의 이트적 감수성을 표현할 방도로 시작한 온라인상의 아카이빙이다. "현재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자연과 관련한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리빙, 디자인, 아트 프로젝트까지 산재한 가치들을 한데 모으는 폭넓은 아카이빙"으로, 의도가 좀 유별하지만 막상 온라인에 접속하면 이들의 놀라운 공력이 읽힌다. 전시장에는 베리키퍼디아의 아카이빙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느낀 어떤 네이처의 현실, 도시 속의 자연에 대한 빛나간 생각과 사례를 담담하고, 혹은 코믹하고 예리하게 전달하기 위한 설치물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자신의 공간에 식물과 자연을 담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 한편으로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조경사, 화훼사 이런 분들이예요. 과거에 비해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푸르게 푸르게'식의 데커레이션을 원하는 이들이 종종 있고 수요와 공급의 두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해요. 모두 그런 상황에 좀 지쳐 있던 때였고, 이번 전시에서 좀 재미있는 작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해볼걸,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윤숙경 대표는 런던 유학 당시 디자인과 아트의 경계에 존재하는 자연을 발견했고, 2년간 한국에서 많은 일을 겪으며 이를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조금씩 감을 타는 중이다. 런던 세인트럴 마틴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다. "마지막 회사가 베네통 코리아였어요. 2008년 즈음은 한창 예코, 예코 프랜들리를 외치던 때였고 그런 캠페인으로 베네통 코리아도 매출이 굉장히 성장했죠. 점차 느낀 건, 이제 실제의 삶과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런던에 갔고, 프리즈 아트 페어나 패션쇼 등이 펼쳐지는 공원의 쓰임새가 흥미로웠어요. 학교를 찾다 세인트럴 마틴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아트와 디자인 안에서의 식물, 가든 이런 식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가령, 드리스 반 노트이 생각한 식물, 마틴 크리드가 생각한 식물의 좋지 않은 점들, 우주와 역사, 아트, 디자인 속에 존재하는 식물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거예요. 제가 할 일을 정확하게 찾은 거죠." 배우 유아인이 활동하는 스튜디오 콘크리트와 베리핑즈가 만나 모종의 작업을 준비 중이다. 8월 1일, 베일을 벗는다.